

Hyungsub Choi (1985 -)

Vit et travaille à Paris et Séoul, Corée du sud.

98,BD Kellerman,75013,Paris, France.

+33)781234098

art_choi@naver.com

choihyungsub.com

instagram : [@hyungsub.choi](https://www.instagram.com/hyungsub.choi)

I. Formation

2020-2021 Etudiant M2, Paris1, art-plastique.(interruption des etudes)

2020 Diplôme DNSEP, Ecole des BeauxArts de Marseille.

Intitulé du mémoire "Constellation et réseaux"

2018 Diplôme DNAP, Ecole des BeauxArts de Marseille.

2010 Diplôme double cursus : Peinture bouddhiste et étude bouddhiste,
Université Dongguk, Corée du sud.

II. Expositions Personnelles et Collectives

2020

« 3m2 » (exposition collective),24 beaubourg,Paris,France.

« HauteLigne » (exposition collective),Galerie67,Paris,France.

« Manifesta : art festival » (exposition collective),Marseille,France.

2019 «Tracer l'avenir, points de vues obliques » (exposition collective), Abbaye
Saint-Victor, Marseille, France.

2018 « À deux pas » (exposition collective), Galerie 89, Paris, France.

2012 «야단법석 [yadanbeobseok] » (exposition collective) Galerie The K, Séoul,
Corée du sud.

2010« 존불 [john boul]» : chercher le bouddha inhérent» (exposition collective),
Space-Moulpa, Séoul, Corée du sud.

III. Collaborations

2012 Installation «Tarae », Space SUN, Séoul, Corée du sud.

2008 Collaboration peinture murale, Cathédrale Youngtong, Suwon, Corée du sud.

2004 Collaboration Peinture murale bouddhiste (trptyque), Temple bouddhiste coréen
HapcheonHaeinsa, Honjaeam, KyungSangNamDo, Corée du sud.

IV. Activités associatives

Membre de AJAC : Association des Jeunes Artistes Coréens, depuis 2018.

Membre de l'association de peinture murale coréenne, 2007-2008.

Représentant des Peintres bouddhistes à l'université Dongguk, 2008.

최형섭 Hyungsub Choi (1985 -)

주소 : 98 BD Kellermann 75013 paris. France.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256, 굿모닝힐 APT 1105동 1402호

Tel : +33)781234098 /kakaotalk ID: whatsubman

E-mail art_choi@naver.com

choihyungsub.com

[Instagram @hyungsub.choi](https://www.instagram.com/hyungsub.choi)

학력

- 2021 프랑스 파리1대학 소르본느 대학 조형미술 석사2학년 과정 수료
- 2020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고등조형미술학교(ESADMM): DNA 석사 졸업
- 2018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고등조형미술학교 DNAP 학위.
- 2010 동국대학교 불교회화, 불교학 학위.

전시경력 : 단체전

- 2020 « HauteLigne 으뜸선 » Galerie67,파리,프랑스
« 3m2 » 24 beaubourg,파리,프랑스.
« Staying with the trouble in painting/ building canebiere : PAC art festival » 마르세유, 프랑스
- 2019 « Tracer l'avenir, points de vues obliques » Saint-victor 수도원, 마르세유, 프랑스.
- 2018 « A deux pas » 89갤러리, 파리(Paris), 프랑스.
« Ricochet », Art-cade갤러리, 마르세유, 프랑스.
- 2012 « 야단법석展 », the k 갤러리, 서울.
- 2010 « 존불展 : 내안의 부처를 찾아서 » 물파스페이스, 서울.

협력작업

- 2012 설치작품 타래 «Tarae », 스페이스 k, 서울.
- 2008 영통성당 내부 동유벽화 : 한국벽화연구소 (대표 일랑 이종상),공동연구원, 수원영통성당.
- 2004 영산회상도, 명부시왕도 (대표 손연철)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홍제암.

협회활동

프랑스 재불청년작가 협회 AJAC 회원. (2018년 부터 2021년현재)

작가노트

인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 왔다. 동, 서양을 넘어 별들은 점으로, 점들은 다시 (가상의)선을 이루고 이 모임들의 관계에 상상력을 넣어 신화를 탄생시켰다. 이는 오늘날 전설, 신화로 공유되어 오고 있다. 인류가 삶과 예술을 점과 선으로 변주하여 보는 시각들은 다양하다. 불교경전에서 인드라신(Indra)이 사는 궁전 위에 무한하게 드리워진 그물이 있으며 그 그물들 위에 수없이 많은 구슬이 이슬처럼 맺혀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비유가 인드라망 세계관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서로 얽혀있고 공생하는 인연(因緣) 법칙 세계를 설한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 인터넷,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상징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적절하게 와 닿을 것이다. 추상회화이론의 기초를 만든 칸딘스키의 저서 "점, 선, 면", 앞서 언급된 신화의 상징, 불교적 세계관등을 근간으로 일상의 점과 선의 요소를 찾아 예술로 승화시킴을 나의 화두로 삼으려 한다.

2019 년 4 월. 최형섭.

1. 성좌星座 부유하는 사람들 : Constellation : Le monde flottant.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 마르세유에서 미술학교 교육을 받은 나의 진짜 스승은 그 일대 자연환경이다. 특히 한 여름 작열하는 지중해 태양은 두 눈이 부시다 못해 시릴 정도다. 강렬한 이 빛과 파도의 만남은 선명한 대비를 자아낸다. 이 둘과의 합이 잘 어우러지면 흑백 사진을 통해 바다 위 사물이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평면처럼 보이게 하는 묘한 힘을 발하는데. 파도를 내려다보면서도 그 위의 하늘 또 그 너머의 우주를 떠올리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묘한 땅임을 5년여간의 남부 생활을 통해 체험했다.

Constellation는 프랑스어로 별들의 모임, 성좌星座 내지는 유명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기도 한다. 사람은 죽어서 별이 된다는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흑백 사진들의 연작이다. 매일 지고 떠오르는 태양과 매일 반복되는 파도는 죽음과 삶을 반복하며 내 마음속 깊이, 강하게 산란되어 스며들었다. 우리는 삶의 파도에 떠다닌다. 미래를 계획해도 다가오는 일을 모두 알 수 없지만, 담담히 삶의 파도에 나를 맡겨 나아간다.

부제로 le monde flottant은 부유하는 세상이란 뜻인데, 미술사에서 일본 풍속화 우끼요에 (浮世畫)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를 의식하여 만든 제목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제목과 작품의 관계를 보완 하려다 보니 나온 중의적 표현이 되었다.

2: 돌: 자연의 사리 연작 : Constellation : (Śarīra 舍利)

“비록 작은 돌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표상적 대상인 돌을 통해 그 생성과정, 인연, 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불가 佛家의 문장이다. 지중해 연안 도시에 살다 보면 태풍급 바람 '미스트랄'을 만나게 된다. 3-4일 이상 지속되며 지붕, 기와를 날리고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다. 밤에는 바람 소리가 마치 유령의 비명 소리와도 같다. 이 바람이 지나간 다음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고 깨끗하며 주위는 잔잔하고 고요해 진다. 이 바람이 멈춘 후, 평온함을 찾은 해변가를 방문하곤 했는데, 바람에 날려 흩어진 조약돌들의 모습이 마치 승려들 수행 과정에서 나온다는 사리舍利를 연상케 했다. 혹은 진주와 같은 자연에서 온 결정체였다. 평소에 흔한 돌들이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그 시련을 견뎌낸 작은 돌들과 이들을 보듬어주듯 반겨 주는 지중해의 태양빛 덕분이었다.

3: 만남, 도시의 새 : Rencontre, Oiseaux urbains

: 새들과 도시문명의 만남이 공명하여 운율을 내는 순간들.

도시의 새들을 사진으로 담은 이유를 반추해 보면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새에 대한 인간의 동경 '자유'의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도심과 본래 그들의 보금자리인 자연을 오가며 생활하는 새들의 모습과 이곳 유럽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인 내 모습이 묘하게 닮아서다. (우리는 모두 지구에 온 이방인이지만)

새들과 인류문명의 만남(건축물, 동상, 인간의 도구등)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며 나와 타 문화와 만남을 은유적으로 상기시키고 투영시키는 대상이 '도시새'로 표현 되었다.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순간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들의 궤적을 따르다가 드라마 같은 상황을 포착하는 것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기쁘다.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듯, 새들은 인간의 도구들을 그들의 쉼터로 활용할 줄 안다. 나 역시 그들의 규칙적이며 불규칙적인 몸짓들을 포착해 음악 코드처럼 담는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의도 된 그들과의 '협업'이며 뜻하지 않은 '공생'이다.

자유롭게 지상과 하늘을 오가는 새들의 몸짓을 통해 공간에 특정한 리듬과 파장을 만들어 내는 모습은. 점과 선을 부른다. 점이자 선인 나 역시 이에 응해 카메라로 그들을 포착한다. « 존재하는 것은 점이고 살아가는 게 선이라면 우리는 모두 점과 선이다. 예술은 시이자 언어를 초월한 것 »이라는 말처럼.